

March 20 마음이 청결한 자

• 마태복음 5:8; 누가복음 15:25-31

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욕망과 탐욕, 죄와 감정의 부유물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,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.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도 아닙니다.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속의 더러움들을 흘려보내고 비워 낼 때,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.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.

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자세 때문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말이나 생각을 비운 깨끗한 마음(pure in heart)으로 나아갈 때,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. 소통을 위해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려야 합니다. 귀만 열어 놓을 게 아니라 눈빛과 얼굴과 몸 전체로 잘 들어야 합니다.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,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헤아려야 합니다.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까지 순종해야 합니다(눅 15:25-31).

하나님은 청결한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.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자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. 교회사 가운데는 자신의 청결함을 살피지 않고, 남의 청결함만 살피 비난하고 정죄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,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찬 신앙과 삶을 책망하셨습니다.

눈을 감고 하나님께만
집중해 보십시오.

- ①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은 무엇입니까?
- ② 믿음으로 주께 위임하며 흘려보내고, 비워 내십시오.